

# 정암사 적멸보궁, 43억원 투입 정비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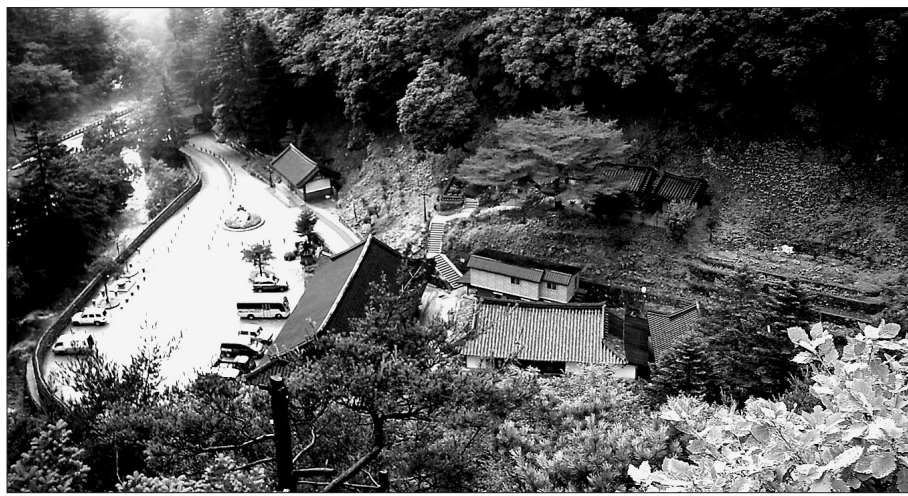
### 정선군, 일대 종합정비 수마노탑도 국보 승격 추진

신라 자장 율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 정암사가 올해부터 종합정비에 들어간다. 정비사업 이후 성지순례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선군(군수 최승준)에 따르면 지난해 정암사 수마노탑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맞춰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마노탑 5개년 종합정비계획에 돌입한다.

정선군은 지난해 보물 제410호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신청했지만 '원형 훼손 가능성이 높고, 사찰 창건시기 고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격 거부를 당한 바 있다. 정선군은 올해 먼저 수마노탑이 통일신라 말~고려 초에 건립됐다는 역사적 고증을 위해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정암사 전역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강원문화재연구소의 현지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로 추정되는 기와 문양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해 건물지 4동이 확인됐던 만큼, 수마노탑의 건립 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 발굴에 총



정비에 총 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정선 정암사 전경. 합백산 일대는 국립공원과 생태지구로도 지정된다.

력을 기울여 국보 승격을 위한 역사 고증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건물지들은 계곡을 끼고 산지에 조성된 가람의 축조방법에 대한 정보와 정암사 사역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음을 밝혀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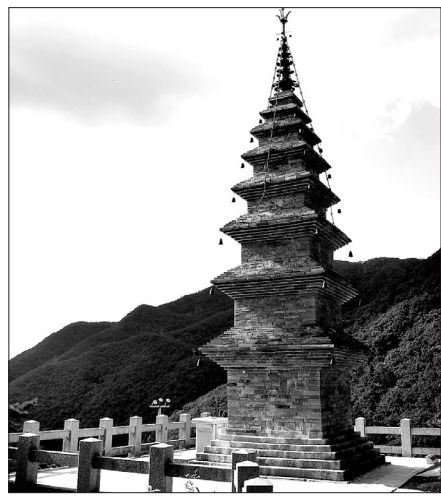
정선군은 발굴조사와 함께 현재 현대식 건물로 개량된 정암사 내 관음전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을 철거하고 연차적으로 전통 사찰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공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사찰 종각 위치를 적멸보궁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덕한 군 문화예술담당관은 "정암사의 종합정비계획과 발굴조사 등을 통해 수마

노탑의 학술적 가치와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선군은 정암사가 위치한 합백산과 민동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합백산 지구를 정암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체험공간으로 구성하며 지구 내 야생화 군락지를 묶어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합백산 열목어 서식지를 복원하고 만항지구를 공원마을 지구로 편입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민동산 지구는 역세를 중심으로 하늘 아



국보 승격이 추진되는정암사 수마노탑.

래 첫 동네 한지 마을, 삼내약수, 발부덕마을, 돌리네 공원, 화암약수 등과 연계한 4계절 가족 등반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한편, 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때 고승 자장율사가 당나라 산서성에 있는 정량산 운제사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정골사리(頂骨舍利), 치아, 불가사(佛袈裟), 폐엽경(貝葉經) 등을 전수해 귀국했으며 동왕 14년에 금탑, 은탑, 수마노탑을 쌓고 그 중 수마노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유물을 봉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한국문화예술위 올해 4월 나주로 이전

### 지역불교계 "예술위 이전 영산작법 전승 등 불교문화 융성 계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4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다.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10여 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역 불교예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 중심의 지원기구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예술위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술위의 이전에 따라 호남지역의 새로운 문화융성과 문화콘텐츠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예정이다. 특히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많은 지역전문화를 갖고 있는 불교계는 적극적인 대비와 활용이 주목된다.

예술위는 2014년도에 문예진흥기금 공모를 통해 전통문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문화에 공모사업과 예산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문화분야는 공연과 지역전문비행지,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등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호남지역 불교계는 영상회와 사찰음악회, 사찰음식, 해외불교교와의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예진흥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광주지역에서 영산작법을 계승하고 있는 전통불교영상회 부회장 시각 스님은 "영산작법은 문헌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이 부족해 일반인들에게 쉽고 편한 접할 수 공연이 없다. 영산작법 외에도 불교계의 공동적 문제인 건물 불사 외에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구암사 국립대전현충원에 무료급식소 기증

대전 구암사(주지 복천)는 2월 5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 옆에 85㎡ 규모(6,700만원 상당)의 유가족 무료급식 나눔장소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및 기부채납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암사 주지 복천 스님과 이상민 국회의원, 민병원 국립대전현충원장, 임재인 대전시의회 부의장, 강숙자 유성시니어클럽회장, 박근태 나눔회장, 여래성 나눔단장을 비롯한 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암사는 2010년부터 매년 현충일과 천안함 용사 추모 경기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시 국수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13년 4월부터는 현충원과 유가족 무

료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매식이 열리는 현충관 옆에 간이식당을 마련해 유족과 참배객들에게 국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지난해에는 약 8만 여명에게 무료급식소를 이용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립대전현충원은 그동안 국가 보훈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의 편의증진과 예우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이소제, 연경옥, 안태균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구암사 주지 복천 스님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호국영령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하고, 유가족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자비신행회, 2014년 다양한 불교강좌

### 2월 6일 정기총회서 차문화·사찰음식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결



광주지역 대표적 불교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과 운영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6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2013년도 주요사업 실적으로 복지사업영역에서 행복한 쉼터(무료급식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 세대 생활지원사업, 청소년가장세대 말발찬지원사업이 세분화되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지난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2년 대비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원이 증가했다"며 "올해에

도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결의된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매일 운영되는 무료급식터인 '행복한 쉼터' 확대 △가죽이 함께하는 십시일반 밥차 운동 전개 △청소년가장세대 지원사업 확대 △3월중에서 재가 화엄학림이 1년 과정으로 개강(해광 스님의 정토삼부경 강좌) △3기 리더스클럽 개강(하반기) △한빛문화어카데미 3개 교육과정(1년 과정) △3기 자연사찰음식강좌(4월중 개강) △8기 불교호스피스카데미(하반기) △우뉘사나 수행강좌(4월중 개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마지막 사리 친견 기회, '미륵사'로 오세요

### 미륵사지 사리장엄특별전 3월 30일까지 개최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불자들의 방문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부처님의 진신사리 13과와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함께 발견된 96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전시관 측은 개관 2개월이 지난 현재 하루 평균 1,500명, 연인원 10만명 정도가 관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 온 학생들과 관련 연구자들. 정작 사

리 친견을 위해 방문하는 불자들의 방문은 저조한 편이다.

이택희 익산불교신도연맹회장은 "처음 사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 비하면 불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며 "남은 기간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13과와 국보급 가치를 지닌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금제사리봉영기, 은제판신 등의 성보문화재가 발견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특히 진신사리 친견부스를 별도로 마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지역 불교대학, 잇따라 졸업식 개최

전북지역 불교대학들이 잇따라 졸업식을 개최한다.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은 2월 9일 전북불교회관에서 300여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25기 졸업식을 열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상에 최태동, 화엄불교대학 이사장상 김중필·이호진, 화엄불교대학장상 윤정숙·손병근, 최우수상 이정화, 우수상에 최덕환·김숙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전북 불교총회와

인제양성을 위해 지난 1989년 설립된 화엄불교대학은 1990년 제1회 졸업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과 전주 참종은우리질 불교대학(학장 회일)도 2월 9일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와함께 남원불교대학(학장 혜신)은 2월 20일,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은 23일 졸업식을 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 옥천범음대학 201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계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생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 수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조인각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육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이기봉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마일운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심만춘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최원허 합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www.okchunbud.kr/

###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등 일반인
- ◆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 전형일정 : 2014년 1월 20일 ~ 2월 28일

### ■ 전 형 료 : 50,000원

### ■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 ■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독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3.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4.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